

# 하아디와 로렌스의 자연관 비교

양 영 수\*

## 목 차

I. 근대서구 지성의 자연관	IV. 로렌스의 자연관
II. 하아디의 자연관	V. 양자의 비교

## I. 근대 서구 지성의 자연관

근대적인 산업화를 겪는 동시에 자연과학적 기술적인 세계관이 유포되는 등 격동기에 처해있던 19세기 서구 지성사회에 있어서 자연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는 낭만주의적인 자연관과 진화론적인 자연관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낭만주의적 자연관의 큰 흐름은 원시시대로부터 내려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시인들의 자연관은 가시적인 자연현상들 배후에서 불가시적이고 신령스러운 힘(또는 영혼)을 상정하였다. 감각으로 알 수 없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힘의 존재와 그 작용을 믿는 원시인들의 자연관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이어받은 것이 근대의 낭만주의의 자연관이다. 낭만주의적 자연관은 자연현상들 배후에서 초자연적인 거대 질서를 찾아보려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인간과 자연현상들 사이의 대립까지 해소하려고 한다. 우주에 편재하는 전지전능한 정신력인 신의 섭리를 모든 자연현상들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범신론적인 기독교 신앙인은 자연에 대한 원시적 낭만주의 태도의 한 예이고 그 대표자로서는 워즈워스나 에머슨을 떠올릴 수 있다.

낭만주의적 자연관은 데칼트적인 2원론의 분석태도와는 멀리 동떨어져 있다. 인간과 자연, 의식과 무의식, 경험하는 주체와 경험의 대상인 객체를 근본적으로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계와 비정신계를 2원론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동일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자연은 눈에 보이는 섭리[신의 정신]이고 섭리는 눈에 안보이는 자연이다”(Nature should be spirit made visible, spirit Nature become invisible. Ebbatson, 11)라는 셸링의 말처럼 낭만적 자연에 찬가는 대자연 속에 숨어있는 신의 섭리를 찾으려하고, 세속세계에서 마모되어가는 자기정화적인 영감을 자연 속에서 찾으려한다. 인간이 문명세계에 살게 되면서부터 인간중심의 편리와 목

\*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적을 위하여 자연을 기술적 지배의 대상으로 보고 타인을 자연지배력의 경쟁자로 보게 됨으로써 감성의 타락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자연찬미적인 낭만주의이다. 에밋슨(Roger Ebbatson)에 따르면, 낭만적인 자연관은 자연의 질서에서 신의 섭리나 계시를 찾기 때문에 영혼구제의 의미가 있고, 진화론적인 자연세계는 생존경쟁의 살벌한 장소이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으로 차있는데, 소설문학에서 그리는 자연의 양상들은 이 두 가지 세계상에서 나온 것이다[The Nature tradition in the novel took the form of a synthesis of Romantic visions of Nature as revelation and deliverance and Darwinian pictures of man's ordeal in the natural world. 26].

다윈의 진화론적인 자연관에 따르면 자연세계는 생존경쟁의 살벌한 벌판이며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정글의 법칙만이 통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낭만적인 자연미 감상의 대상이 아니다. 정글 속의 동식물에게 적용되는 무자비한 자연법칙은 인간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현재의 인간존재도 자연계의 비정한 진화과정을 거쳐서 생겨난 결과물이다. 자연법칙 가운데에는 신의 섭리나 은총이 개재되어 있지 않고 섭리의 나타남으로서의 정의나 선의를 구현한다는 숨겨진 의미가 없으며 인간의 목적이나 욕망에 대해 중립적일 뿐이다. 진화의 법칙인 적자생존의 자연선택과 우연적인 돌연변이(突然變異: mutation)는 선악이나 미추 등 인간적인 소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다윈적인 진화론(Darwinism)을 다소 과격하게 확대발전시킨 것이 다윈의 제자이면서 유물론적인 자연철학자인 헤켈의 진화론이다. 다윈은 진화론적인 증거물들을 발견한 후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면서도 완곡한 불가지론자로 머물렀으나 헤켈은 무신론적인 범신론자임을 공언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연의 실체와 신을 동일시하는 범신론적 입장에 서는 것은 자연과학자로서 온당한 일이며 범신론은 일종의 온건한 무신론이었다[A pantheism that identifies God and substance is necessarily "the world-system of the modern scientist". All scientists who think theism can be reconciled with science are, in Haeckel's view, either dishonest, or confused, or victims of sophistry. Haeckel agreed with Schopenhauer's remark that pantheism is only a polite form of atheism. Edwards, Vol 3, 401]. 또한, 헤켈은 진화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개체내의 발달과정까지도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진화의 결정요인으로는 세대간의 유전과 개체내의 환경적응 두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19세기말 생물학의 지도이념을 제공하였다. "개체발생(Ontogenesis)은 계통발생(phylogenesis)을 반복한다"는 이른바 생명유전적인(biogenetic) 법칙을 발표한 그는, 생물과 무생물은 그 근본적인 성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아서 무생물에게도 생물에서와 같은 감각과 의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심리학 연구는 생리학의 한 분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II. 하아디의 자연관

하아디 소설의 자연은 맹목적이고 잔혹한 생존경쟁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다윈적인 진화론과 크게 상통한다. (하아디는 실지로 자기보다 31년 연상인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1859)을 탐독하였고 문단 후배들에게 이 책의 독서를 권하였다고 한다.) 하

아디 소설에서의 자연은 단순한 작품배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인공처럼 심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묘사의 분량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아디 소설의 자연은 그 앞에서 낭만적인 찬미의 영감을 얻기보다는 그 거대하고 가공스러운 모습 앞에서 겁에 질려 생각의 갈피를 못잡게 되는 비정한 힘이다.

하아디 소설 속의 자연에서는 기독교적인 신의 섭리가 개재되어있지 않다. 하아디 소설에서 인간사의 성패에 개입하는 초인간적이고 불가해한 힘을 흔히 內在意志(Immanent Will)라고 하고 이 내재의지의 대항자로서는 운명, 본능, 사회제도 등과 함께 거대한 자연력이 포함된다. 하아디 소설의 자연력은 신의 섭리에 의한 가호나 축복의 의미가 없고 인간의 목적이나 욕망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인간이 뜻하는 일에 훼방을 놓기가 일쑤이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우수한 유전자 획득의 단초가 되는 돌연변이 현상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하아디 소설의 주인공들이 불행에 당하는 단초는 기막히게 우연히 발생하는 사소한 사건이나 아슬아슬한 차이로 어긋나는 일에서 시작되는 예가 허다하다[Hardy's obsessive use of chance and coincidence is intended to ramify this world-view: "The more we know of the laws and nature of the universe, the more ghastly a business one perceives it all to be -- and the non-necessity." Ebbatson 101].

Tess가 Angel을 처음 만나는 화창한 날 그녀는 자연의 낭만적인 분위기에 젖어 기쁨에 취하지만 이 순간에 우연히 이루어진 이들의 만남이 결국은 이들간의 비극적인 오해와 불화의 단초가 되어버린다. 낭만적인 자연감상의 기회조차도 우연성의 인간비극 실현을 위한 제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아무리 진실된 의지에 기인하고 도덕적인 의미를 지닌 행위도 자연현상의 일부로 자리매김될 때에는 자유의지와 도덕성을 초월한 비인간적인 사건이 되어버린다. 인간적인 소망과 목적을 모두 배제하는 하아디의 자연관에 의하면, 자연현상은 인간적인 소망과는 무관하게 일어나는데도 인간위주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은 자연력의 횡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고 자연현상의 순리에 거역하는 감상적인 우행을 범한다는 것이다.

하아디의 소설에서는 자연력에 순응하는 길을 택하는 자기방어적인 주인공들이 자연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오만한 주인공들보다 생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있다. 『광란의 무리를 멀리하고』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나오는 Gabriel Oak는 바람소리로 바람의 방향을 알며 피리를 불어 양들을 인도할 줄 아는 사람인데 한때 자기가 사모하는 여자로부터 버림을 받지만 이를 원망하지 않고 때를 기다린 끝에 사랑의 성공을 이루어낸다. 여자의 호의를 기다리는 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연묘사가 방대하며 인간과 자연의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작품으로 대표적인 것이 『귀향』이다.<sup>1)</sup>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이그던 황무지"(Egdon

1)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연, 인생의 목적에 역행하는 비정한 거대질서로서의 자연에 대한 대표적인 묘사가 『귀향』의 서두에 나온다. 여기에 "이그던 황무지"의 어둡고 무시무시한 풍경에 대한 장황한 묘사가 나오는데, 삼라만상이 고이 잠든 밤중에 오히려 잠에서 깨어나는 이 거대한 황야는 인간이 모르는 태초의 비밀을 모두 보아왔고 인간이 자랑하는 화려한 문화예술을 가소롭게 여기는 듯하며 현재에도 마치 인간의 목적이 깨어져버릴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서술을 통하여 이 작품 말미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예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Every night its Titanic form seemed to await something: but it had awaited thus, unmoved, during so many centuries, through the crises of so many things, that it could only be imagined to await one last crisis-- the final overthrow. ...

Heath)의 정적은 과묵하고 순종적인 주인공과 어울리며,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황무지 풍경은 시대변화를 모르는 고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또한, 인위적인 제도화 이전의 자연종교적인 미신과 설화를 믿고 화톳불 신호나 주술적 치병 등 오래된 풍속에 젖어있는 이곳 주민들은 광대무변하고 만사포용적인 것처럼 보이는 자연풍경과 잘 어울린다. 모든 불행을 견뎌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Diggory Venn과 Thomasin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공적인 사랑의 주인공이 된다. 반면에 분에 넘치는 사랑의 탐욕을 좇으며 자연의 웅대한 품을 볼 줄 모르고 운명을 배반하는 Eustacia와 Wildeve는 파멸한다.

도시적인 허영을 포기하고 자연에 묻혀 살기를 택하는 Clym이 사랑에 실패하고 장님이 된다는 구도는 자연친화적인 시골주민들을 선부른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지적 우월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카핀터에 의하면, Clym이 시골사람들을 가르치려는 것은, 가망없는 인류구제의 환상에 빠져서 자기성찰의 더 시급한 과제를 망각한 탓이고, 그는 이러한 오만함 때문에 프로메테우스적인 용기보다는 오이디푸스적인 자기맹신의 우행을 범한 것이라고 한다[But, due to his excessive devotion to his ideal of becoming a schoolmaster, he is transformed from Prometheus into Oedipus. ... he cannot see the nature of his illusions, 95]. 하아디 소설에서 똑똑하고 정열적인 자유연애주의자들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광대한 자연의 품을 몰라보고 그곳에서 떠나려고 하다가 사랑에 실패한다.

하아디의 자연관은 기본적으로는 진화론적 자연과학적인 것이나 여기에서 센티멘탈한 상상력에 의해 비감스러운 색조가 가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소설 속에 자연은 인간사가 벌어지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 자연력의 횡포가 워낙 심하고 인간의 무력함을 압도하다보니 그냥 무색투명하고 강력한 자연세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신비적이면서 초인간적인 질서, 원리, 의지 같은 것이 있어서 인간의 인지능력을 가소롭고 비참한 것으로 비쳐지게 만든다. 카핀터에 의하면, 『귀향』의 무대인 “이그던 황무지”가 인간욕망이 무참히 좌절되는 비애감을 더해주는 이유는, 신탁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의 운명 앞에서 무력할 수 밖에 없는 그리스 신화 주인공들의 그림자들을 작품무대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프로메테우스를 비롯한 티탄족 신들이 그 용맹함과 웅혼함이 뛰어난에도 불구하고 절대권력의 제우스신에게 반역했다는 죄목 때문에 탈타로스 지하감옥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진 내용을 소설의 배경 묘사에 넣음으로써 광막하고 음산한 황무지가 곧 인간역사의 축소판이라는 인상을 자아낸다는 것이다[... the heath itself is transformed into a microcosm with mythic overtones by Hardy's references to ... Tartarus “the gloomy foster-home of rebel-gods.” ... Further references to its Tartarean nature help to relate it to the grisly underworld of the ancients in which tormented souls work out their eternal destinies, 96].

---

Civilization was its enemy: and ever since the beginning of vegetation its soil had worn the same antique brown dress, the natural and invariable garment of the particular formation. In its venerable coat lay a certain vein of satire on human vanity in clothes. A person on a heath in raiment of modern cut and colours has more or less an anomalous look. *The Return of the Native* 3-4.]

하아디 작품에서 가혹한 운명의 희생자로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인간이 신들의 가엾은 회롱물로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빗대어 묘사될 때가 많다. 이는 인간역사의 무대로서의 자연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작가의 비장한 운명관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그 대표적인 것이 『테스』의 마지막 장면일 것이다. 비비꼬인 운명의 실타래 같은 테스의 애정행로는 사형집행을 알리는 검은 깃발이 붉은 벽돌건물 감옥의 8각형 탑 꼭대기에 휘날리는 것으로 끝나고 이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그녀의 전남편 Angel과 누이동생 Liza-Lu가 무더운 여름날 이른 아침에 낫선 곳 원거리를 찾아온 것으로 되어있는 이 마지막 장면은 하아디 문학의 운명철학을 응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에스킬루스의 *Prometheus Bound*에서 신의 명령을 거역한 것 때문에 최고신 제우스의 손아귀 안에서 꼼짝없이 포박당하는 프로메테우스처럼 비운의 연인 테스가 신의 농락을 당한 것이라는 장면묘사는 거대한 자연력 앞에서 무력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위상을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그리스 신화 속의 신의 명령이나 신탁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자연법칙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현세의 인간비극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덤 속에 누워있는 테스 가문의 귀족신분 조상들,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기도의 의미가 어떤 것이든지 다만 고개 숙일 수 밖에 없는 살아남은 사람들, 무심한 듯 펄럭이는 검은 깃발. 이 모든 무대소품들은 한 여인의 속절없는 죽음을 한층 더 비장한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Upon the cornice of the tower a tall staff was fixed. Their eyes were riveted on it. A few hours after the hour had struck something moved slowly up the staff, and extended itself upon the breeze. It was a black flag.

'Justice' was done, and the President of the Immortals, in Aeschylean phrase, had ended his sport with Tess. And the d'Urberville knights and dames slept on in their tombs unknowing. The two speechless gazers bent themselves down to the earth, as if in prayer, and remained thus a long time, absolutely motionless: the flag continued to wave silently. As soon as they had strength they arose, and joined hands again, and went on. (446)

영국문학사에서는 하아디를 보통 자연주의 작가로 칭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 자연주의 문학이라는 용어의 뜻에는 오해의 여지가 많다. 그의 문학이 종래의 종교적 형이상학적 인간상, 동물과는 다른 아름답고 존엄한 이미지의 인간상을 파괴하는 19세기말 자연주의 문예사조 흐름의 한 갈래로 볼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하아디 문학에서는 흔히 행해지는 문학사서술상의 자연주의 문학에 함축된 냉철한 과학정신과 합리주의적 분석태도를 결하고 다분히 정서적이고 신비주의적인 특징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로렌스의 자연관

로렌스는 현대 기계문명의 반생명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보낸 작가이다. 그의 작품 가운데에서 문명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자연세계에 대한 찬미를 발견하거나 그의 자연묘

사 가운데에서 인간구제적인 영감과 생명력의 암시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의 문학작품중 상당부분이 자연에 가해지는 문명인들의 파괴행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남녀간 섹스의 의미를 문명구제적인 종교차원으로까지 심화시켰던 그의 생명주의 애정소설은 섹스에 담겨진 자연본래적이고 우주적인 생명력의 의미를 전해준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죽음과 같은 절망감을 느꼈던 그에게 한 가닥의 희망과 안식을 안겨준 것은 문명이전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간직한 대자연의 품이었던 것이다.

에박슨에 의하면, 로렌스의 자연관을 형성케한 사상적 원천으로는, 어린시절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관련된 그리운 추억과 이같은 추억에 여행하는 자연파괴적 광산개발의 확인, 카알라일의 영웅주의적 중세찬양적 역사이론, 러스킨의 자연묘사화법 미술이론, 쇼펜하우어의 범신론적 무신론 및 의지부정의 염세철학, 하아디나 메리디스 소설의 자연주의적 묘사 등을 들 수 있다(Ebbatson 241). 로렌스는 또한, 워즈워스나 에머슨에게서부터 자연을 문학적 영감의 원천으로 보는 범신론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자연관을 배우기는 했지만, 이들 낭만주의 시인들의 범신론적 자연관에서부터 기독교적 신앙심과 윤리의식을 빼버린 것이 그의 자연관의 특기할 사항이다. 그는 19세기 영미문학의 낭만주의 시인들처럼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문명의 타락을 방지하는 정서순화력과 자기초월적인 영감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자연미를 통한 자기초월의 경험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었다. 기독교적인 낭만주의 시인들이 자연미 속에서 신의 섭리의 구현으로서의 균형미나 장엄미를 찾으려 했다면, 로렌스는 보다 역동적인 에너지를 자연속에서 찾고 이를 인간적인 자기초월 시도의 발판으로 삼으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로렌스와 워즈워스의 자연관이 그 낭만주의적 경향에 있어서는 공통되면서도 그들의 종교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입장을 달리하였다는 사실은 에딘스의 견해를 들어봄으로써 더욱 명백해진다. 그에 의하면, 로렌스는 워즈워스가(단테, 셰익스피어, 베토벤, 헛트먼 등과 같이) 자연을 바라보는 낭만적인 감상법을 전파시킨 유공자임을 인정하였지만, 자연현상 모두에 대해 자신의 영혼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려함은 감정이입의 오류임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워즈워스의 시문학이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은 종전의 인습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 감추어진 질서와 조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종교적인 사랑과 경건한 축복감에 차있는 이 시인의 강박적인 자연감상법은 자연 자체의 풍부하고 생생한 아름다움을 놓치게 했다는 게 로렌스의 주장이라는 것이다.<sup>2)</sup>

2) 에딘스의 이같은 지적은 너무 압축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 약간 첨언할 필요가 있다. 언젠가 워즈워스는 앵초(櫻草: primrose) 꽃을 따서 가슴에 대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일부이거나 한 것처럼 "나도 강가에 피어난 한 송이 노란 앵초꽃이래오" 하고 영탄하는 시를 쓴 적이 있었는데, 로렌스는 "Love was once a Little Boy"라는 에세이에서, 워즈워스의 이같은 태도는 꽃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아니며, 꽃의 영혼에 대해서는 꽃의 영혼으로 대접해주어야 마땅하다는 뜻으로 비꼬는 투의 언급을 했던 것이다. [Wordsworth gathered it[the primrose] into his own bosom and made it part of his own nature. "I, William, am also a yellow primrose blossoming on a bank." This, we must assert, is an impertinence on William's part. He ousts it from its own individuality. He doesn't allow it to call its soul its own. ... He didn't leave it with a soul of its own. It had to be his soul. And nature had to be sweet and pure, Williamish. Sweet-Williamish at that. Phoenix II 447-8.]

He[Lawrence] consistently ranks him[Wordsworth] among the few great writers who have made a profound difference in the way we view reality, as when he credits him with being the first to show us the primrose ... as part of those primordial energies not mediated by cultural conventions. Lawrence can then turn around, in another essay, and mock Wordsworth for a poem in which he denies the primrose its individual soul by identifying it with his own soul and by extension with the "One Soul" of the universe and with the dubious principle of "Boundless Love." Lawrence's attack here is that Wordsworth robs nature of its dark, demonic power by presenting it as "sweet and pure" or - as Lawrence mischievously puts it - "Sweet Williamish." (Eddins 41-42)

대자연의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에 두루 편재해 있는 신의 섭리가 각자의 마음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기독교적 범신론 대신에 로렌스는 헤켈의 생명유전 법칙을 도입함으로써 개체적인 소우주의 원리가 곧 대우주의 원리로 통한다는 명제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에밋슨의 표현대로, 로렌스의 생명주의 문학은 진화론적 유물론적인 우주관과 자기초월적 낭만적인 자연관 사이의 만남[the clash between the rationalist-materialist reading of the Universe expounded by Darwinism and the transcendent<sup>al</sup>-vitalist reading of the Romantic Nature tradition, 258]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곧 논리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입장인 자연과학적 결정론과 신비적인 초월주의를 절충 화해시키려는 노력[In his finest imaginative work Lawrence reconciles causal evolution with Nature mysticism, 240]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세한 세포 하나 가운데에 한 유기체 전체의 유전적인 생명원리가 담겨있다는 헤켈의 주장은, 개체의 소우주 가운데에서 대우주의 원리를 발견하는 로렌스의 범신론적 자연관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 에밋슨의 견해이다[He[Haeckel] recognizes in the tiny cell the all-pervading elementary organism, 34: Pantheism is indeed, Haeckel asserts, 'the world-system of the modern scientist', and it is already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Lawrencean system, 36].

개성적인 감수성과 능동적인 상상력을 중시한 로렌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의 문학의 구성요소들 가운데에는 헤켈류(流)의 물리주의적인 것들이 있음이 사실이다. 우선, 인간의 의지와 욕망을 자연과학적 차원에서 해석하는 헤켈의 인간관이 로렌스 소설의 성격묘사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이 우리의 흥미를 끈다. 헤켈에 의하면, 무엇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인간의 의지는, 햇빛을 향하거나 어둠을 피하려는 식물의 향성(向性: tropism)과도 같은 것이다[Haeckel postulates ... the bases of the will of man are to be found in attraction and repulsion, which operates like the tropism in plants the way they strive after light or darkness, heat or cold. ... In man delight and disgust, love and hatred form the mainspring of civilization. But even the basic molecules are animated by this polarity and affinity. Ebbatson 36]. 로렌스는 자신의 성격묘사는 종전의 소설들에서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말을 하였다. 그는 『무지개』를 발표하면서 이 작품 속의 성격묘사는, 여러 형태로 변하는 가운데에도 불변하는 한가지 원소, 즉 동소체적(同素體的: 同質異型的)인 상태를 목표로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다. 가령 탄소라는 한가지 원소가 변하여 금강석과 석탄과 숯 등이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금강석이나 석탄과 같은 변형이 아니라 무엇으

로 변형되기 이전의 탄소라는 원소이며, 자신의 성격묘사는 인간보다 더 큰 범주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고, 자기 작품속의 주인공 개개인에 대해서는 비인간적인 자연현상으로서 제시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I only care about what the woman is ... what she is as a phenomenon (or as representing some greater, inhuman will) instead of what she feels according to the human conception. *The Letters* 183].

소설속의 성격묘사에 동소체적인 탄소 같은 것을 보여주겠다고 한 로렌스의 말은 어느 정도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는 실제로 인간욕망의 원리를 물리적 자연법칙과 같은 차원으로 보는 표현을 가끔 보여주었다. 그는 형이상학적인 목적의식이나 추상적인 관념에 의해 인간행위를 설명하기를 극히 싫어한 사람이었다.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인간의 마음을 물체간의 인력 작용과 같은 역학적(力學的)인 자연현상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던 그의 문장들 가운데에는 자연주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관이 엿보일 때가 있다. 로렌스는 실지로 인체의 네 부분에서 흐르는 인력(引力: attraction)과 반발력(反撥力: repulsion)의 작용으로 인간의 애증심리를 설명하려 하였다[He finds the basis of psychic activity in the currents of attraction and repulsion flowing between the four centres, Howe 32]. 로렌스의 에세이 "First Glimmerings of Mind"에는 positive[negative] poles, polarity, polarized, circuit, nucleus, balancing과 같은 동력학(動力學) 용어으로써 인간정신의 발달을 풀이하는 문장이 여럿이 나와있다. 이 에세이에서는 sense - sensation - desire - impulse와 같은 인간의 원초적 경험들을 정신현상의 기초로 보고 있으며, 인간의 심리현상도 결국은 물리현상과 같은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다.

The moment there is a perfect polarized circuit between the first four poles of dynamic consciousness, does the mind, the terminal station, flash into cognition. The first cognition is merely sensation : sensation and the remembrance of sensation being the first element in all knowing. ... All our primal activity originates and circulates purely in the four great nerve centres. All our active desire, our genuine impulse, our love, our hope, our yearning, everything originates mysteriously at these four great centres of our existence. (Fantasia 74-5)

『무지개』에서 Ursula에게 물리학을 가르치는 Frankstone 교수의 입을 통하여 로렌스 사상의 일각에 깃들어 있는 보편적인 물리주의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이 물리학자는 전깃불 같은 자연현상과 인간의 심리세계가 다를 것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데, 조연급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한 것은 아마도 이런 관점이 작가 자신의 마음의 어느 일부분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같은 질문을 들은 Ursula는, 실험실의 현미경 아래에서 단세포생물의 숨털이 움직이는 이치를 인간의 욕망과 같은 차원에서 설명할 수가 있고 그 이치는 "그것 자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라는 결론을 내린다

"No, really," Dr Frankstone had said, "I don't see why we should attribute some special mystery to life - do you? We don't understand it as we understand electricity, even, but that doesn't warrant our saying it is something special, something different in kind and distinct from everything else in the universe ... May it not be that life consists in a complexity of physical and chemical activities, of the same order as the activities we already know in



science?” (440)

[Ursula asked] For what purpose were the incalculable physical and chemical activities nodalized in this shadowy, moving speck under her microscope? ... It intended to be itself. (441)

인간의 생명현상을 자연계의 물리현상과 같은 차원에서 보는 헤켈류의 과격한 진화론에서 짝퉁 것이 로렌스의 인간관이라고 하지만, 이 작가의 문학을 자연주의적이라고 끝내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작품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강력한 낭만주의적 성격이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로렌스는 자연주의적인 발상법을 끌어올려서 낭만주의 차원의 인간관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단세포 생물의 솜털운동이나 인간의 욕망이나 다같이 우주적인 생명력의 자기발현이라고 하는 자연주의 관점에서부터 출발하였지만, 인간의 욕망을 그 본래의 자연상태로 복원시킬 때에는 결국 우주적인 생명력의 거대한 힘에 같이 합류할 수 있다는 능동적 낭만주의 관점이 도출되었다는 해석인 것이다. 다단계로 진화 발전하는 생명체들의 우주론적 의미가 다르듯이 같은 인간들끼리도 우주적인 생명력의 발현에 동참하는 방식에 따라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헤켈에 의하면, 생물과 무생물은 근본적인 존재방식에서 다르지 않고 개체의 발생과정은 종족의 발생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개체가 생물공동체에 대해 갖는 진화론적 의존관계, 즉 개체 속에 구현되는 종(種) 전체의 원리가 궁극적으로는 우주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되어, 결국에는 우주전체의 운행질서가 개체들 하나하나의 존재방식에서 구현된다는 범신론적 세계관에 이르게 된다고 보면 헤켈의 우주론이 로렌스의 자연관에 끼친 영향을 확인하게 된다. 로렌스에게 있어서도 나 자신의 생명원리는 곧 우주적인 생명의 원리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지개』에서 자신의 존재의의에 회의를 품던 Ursula는 진정한 자기세계를 찾는 것은 무한한 우주적 존재의 실현이라는 결론[Self was a oneness with the infinite. To be oneself was a supreme, gleaming triumph of infinite. 441]에 이르고 있다. 남녀간의 섹스의 의미를 우주적인 생명력의 차원으로 확대시키려 했고, 섹스의 환희란 남녀간의 결합이 우주적인 생명의 힘과 합일되는 순간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던 로렌스 특유의 애정관은 바로 이러한 자연관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욕망을 우주적인 생명력의 차원에서 묘사한 대표적인 작품은 『무지개』이다. 『무지개』의 제1장에서 Tom이 Lydia에게 청혼하러 가는 날 저녁, 과수원의 흔들리는 꽃잎과 하늘에서 웅웅거리는 바람소리가 마치 고백을 앞둔 그의 두근거리는 가슴처럼 느껴지며, 그로 하여금 애정고백의 행동을 결행케 하는 것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인간적인 힘 때문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욕망이라는 것이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우주적인 생명력의 표현처럼 느껴지는 이른바 <탈인성적(脫人性的: impersonal)> 심리묘사의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Brangwen가(家) 농부들의 농사짓는 모습을 그린 이 작품 첫 장면에서, 하늘의 비를 받아 부풀어오른 땅을 일굴 때 땅속의 생명 에너지가 사람들 핏속으로 전해움을 느끼면서 천지간 교접[the intercourse between heaven and earth]에 의한 생명창조의 과정을 확인하고, 발바닥에 달라붙는 흙덩이가 마치 인간의 끈적거리는 욕망처럼 느껴진다([the soil] clung to their feet

with a weight that pulled like desire)고 묘사되어 있다. 농부들의 몸에 와닿는 대지의 생명감과 질량감[feeling the pulse and body of the soil]이며 사람들의 맥박과 짐승의 맥박이 서로 교차하는 착유(搾乳) 장면[the pulse of the blood of the teats of the cows beat into the pulse of the hands of the men]의 묘사는 천지간의 만물이 동일한 생명의 질서 안에 있음을 실감케 하며, pulse라는 단어가 반복됨으로써 혈관의 맥박이 생명의 고동과 사계절의 순환과 생사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우주적인 생명의 주기[pulsing rhythm]를 연상시킨다. 자기 손으로 초목과 짐승들을 키우면서 대자연의 숨결을 느끼는 농부가 자신의 인간적 개체성을 초월하여 우주적인 생명력과 교감할 수 있다는 로렌스적인 감수성은 단순한 육체적 감각에 대해서 얼마나 심오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같이 심오한 감각의 의미는 로렌스 작품의 남녀간 섹스 장면 묘사에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 작가의 에로티시즘 문학을 말초신경 자극적인 저속한 삼류문학과 구별되게 만드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로렌스 문학에서 섹스는 거의 종교적일 정도로 경건하고 인간구제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단순한 감각반응도 우주적인 거대한 생명력의 발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로렌스적인 자연관은, 사소한 자연현상까지도 가볍게 보지 않는 예리한 감수성을 낳는 기반이 된다. 이같은 우주론적인 감수성의 소유자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고, 하늘에 떠도는 구름 한 조각을 통해서도 자신의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삶의 연속성의 의미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무지개』 작품 서두의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Lydia는 정치이념의 맹신자였던 전남편과 사별한 후 자신의 잃어버린 청춘의 회한을 곰삭이면서 요크셔지방 바닷가의 평범한 경치를 새로운 눈으로 감상하고 있는데, 그녀의 그르쳐진 사랑의 행로를 우주적인 질서의 차원에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골의 자연풍경에 접촉함을 통해서이다. 사랑의 회한에 잠겨있는 그녀에게 바다로부터의 기묘한 빛은 집요하게 시선을 끌면서 과거의 추억을 되씹게 만들어준다. 떠오르는 자신의 과거에 한맺힌 사연이 있어서 꽃을 보는 마음이 산란해져오기 때문에 그녀는 반짝이는 빛의 앵초꽃을 몇 송이 따고 싶었을 것도 같다. 이층 창가에 하루 종일 앉아서 바라보는 넓은 바다의 풍광(風光)이 그녀의 마음을 잠결처럼 멀리 꿈나라로 실어갈 수도 있음은, 바다의 반짝이는 빛이든 흔들리는 그녀의 마음이든 모두 우주론적인 의미확대의 맥락에서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자연은 그에게 단순히 외형적인 현상이 아니라 마치 자신에게 무엇을 재촉하고 심란케하고 가부의 의사표시를 하는[insistence, disturbing, without refusal] 다정한 친구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현상을 생물진화의 한 단계로 인식하는 자연주의적 관찰자 로렌스가 물러가고 산천초목과 짐승의 대화를 나누는 낭만적인 감수성의 소유자 로렌스가 등장하는 순간이라 하겠다.

There was green and silver and blue in the air about her now. And there was a **strange insistence of light from the sea**, to which she must attend. Primroses glimmered around, many of them, and she stooped to the the **disturbing** influence near her feet, she even picked one or two flowers, faintly remembering, in the new color of life, what had been. All the day long, as she sat at the upper window, **the light came off the sea, constantly, constantly, without refusal**, till it seemed to bear her away, and the noise of the sea created a **drowsiness in her**, a relaxation like sleep. (52) [문자체 강조는 필자의 것임]

로렌스의 자연관은 결국, 헤켈의 생물유전 법칙에서부터 자연주의적 탈인성적 감수성의 확대를 시사받은 다음에는 진화론적 과학정신에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된다. 정해진 유전인자에 따라 생명체의 일생이 결정된다고 보거나 인간심리를 순전히 물리화학적으로 설명하는 결정론적인 자연관에서 볼 때, 농부의 밭바닥에 느껴지는 우주적인 생명의 기쁨이란 아무래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할 것이다. 무한히 자유롭고 싶은 자신의 상상력과 감수성이 어떤 결정론적인 법칙에 의해 제약받는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작가의 심정에 이해는 가지만, 우주적 탈인성적인 힘에 대한 믿음과 불신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이 개성주의 작가의 일관성 없는 논리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 IV. 양자의 비교

하아디와 로렌스의 자연관을 비교하는 일은 로렌스의 에세이 「하아디 연구」 (“The Study of Thomas Hardy”)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함이 좋을 것이다. 로렌스가 그의 야심작 『무지개』를 집필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그 자신의 문학적 이론정립과 병행하여 하아디 문학의 이념을 발견하려는 목표에서 집필한 이 논문은 이들 두 작가의 문학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필독해야 할 참고문헌이다. 로렌스는 하아디 문학의 근저에 깔려있는 사상과 이념을 밝힌다는 명목으로 유럽의 문학과 예술의 역사를 종횡으로 오가는 폭넓은 문학론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그 자신이 발표할 작품들의 이념적 배경을 천명하는 작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들 양인의 자연관을 비교 연구하는 자료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로렌스가 하아디 문학에서 발견한 것은, 인간세계를 지배하는 초인간적 질서의 개념이었고 이 개념은 로렌스 자신의 문학이념 구축에 주요한 기초로 작용하게 된다. 초인간적이고 우주적인 질서의 지배를 받는 인간세계의 개념은, 로렌스가 학생시절에 심취했던 헤켈의 생물유전론적 자연관과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종족의 발생원리가 개체의 발생원리 속에 재현된다는 명제는 곧 대우주의 운행원리가 소우주인 인간세계 속에서 재현된다는 명제와 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한하게 다양한 인간성격을 작품 속에서 묘사할 때 그 근원적인 유형에 주목하고자

3) 에밋슨에 의하면, 로렌스는 결정론적인 진화론과 기계론적인 인과론을 거부한 다음에 인간의 창의성과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낭만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에딘스에 의하면, 로렌스의 자연관은, 자연과의 영적인 교감을 추구하는 낭만주의 문학의 오래된 전통과 자연의 냉혹하고 맹목적인 진화과정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인식이라는 상반된 입장 사이의 불안한 위치에 서있다고 한다. [Lawrence finally claimed to have rejected evolution as a rigorously determinist reading of Nature: “I don’t believe in evolution”, he declared later ... “like a long string hooked on to a First Cause. ... These reservations centre upon the creativity of man, his realization of a self-hood which may be subdued to no mechanical law or cause and effect. Ebbatson 38.] [Here, I would suggest, is the epitome of a naturalistic modernism suspended between a nostalgia for a numinous communication with nature and the growing awareness of nature as blind, impersonal, violent process. Eddins 46.]

한다는 이른바 동소체적 성격묘사론을 천명한 것도 『무지개』와 「하아디 연구」가 발표되던 무렵이었다. 동소체적 성격론은 말하자면, 인간과 물질의 존재론적 경계선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로렌스의 하아디 문학 연구는 결국 그 자신의 문학세계 구상작업이었다. 인간의 욕망이나 목적의식 여하에 상관없이 초인간적이고 불가사의한 법칙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대한 질서가 『귀향』을 비롯한 몇몇 하아디 작품에서 “이그던 황무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로렌스의 「하아디 연구」에서도 잘 정리되어 있거니와, 이는 곧 그의 작품의 틀을 구성하는 주요한 모티프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The Heath persists. Its body is strong and fecund. It will bear many more crops beside this[human world]. Here is the somber, latent power that will go on producing, no matter what happens to the product. Here is the deep, black source from whence all these little contents of lives are drawn. ... Three people die and are taken back into the Heath. ... It is very good. Not Egdon is futile, sending forth life on the powerful heave of passion. It cannot be futile, for it is eternal. What is futile is the purpose of man. (Phoenix 415)

랑바움(Robert Langbaum)에 의하면, 하아디 작품에서 “이그던 황무지”로 나타나는 초인간적 우주적인 거대질서의 개념을 확인하고 이를 「하아디 연구」에서 개진할 때에 로렌스가 지녔던 자연관은 같은 시기에 집필중이던 『무지개』의 첫 장면 묘사에도 뚜렷이 엮보인다고 한다. 이 장면에서 대지의 풍요한 생산력의 구현으로 묘사되는 브랭윈 집안 농부들의 생애와, (위의 인용에서 crops, the product, contents로 표현된 바) “이그던 황무지”의 생산물로 묘사되는 인간의 지위와는 동일한 발상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무지개』의 같은 장면에서 천지간의 교점으로 새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진다는 남녀간 섹스의 비유가 나오는 것은 『테스』 등 하아디 작품 속의 유사한 표현과도 상통하는 것이며, 이는 하아디 문학에서 로렌스가 추출해낸 바 남성원리와 여성원리의 상호작용을 구체화시켰다는 것이 랑바움의 지적이다. 그의 간결한 표현에 의하면, 위즈워스에 의해 생명이 부여되었던 자연에 대해 남녀간 섹스의 의미를 더 부여해준 사람들이 하아디와 로렌스인데, 이는 이들 두 작가가 다윈의 진화론에 세뇌된 자연주의 작가들임을 말해주는 것이다[Hardy and Lawrence sexualize Wordsworth's living landscape. That is because Hardy and Lawrence are Darwinians. Meyers 73].

하아디와 로렌스의 자연주의 문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서게 되는 계기는, 초인간적인 거대질서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주체적인 욕망에 어느 정도의 무게가 실려지는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나온다고 생각된다. 하아디 문학에서 거대한 자연질서의 상징물인 “이그던 황무지”에서 인간의 선의는 무력한 것이고 인간의 목적은 좌절되게 마련이다. 자연력이나 운명, 사회제도 등을 그 구체적인 대항자로 하는 소위 내재의지라는 이름의 맹목적인 우주질서는 인간의 욕망이나 행복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의 불가사의한 목적을 수행할 뿐이기 때문에 하아디 작품에서 주인공들의 낭만적인 사랑이나 자기실현 욕구는 별로 의미가 없다.<sup>4)</sup>

4) 로렌스는 「하아디 연구」에서 초인간적이고 불변하는 거대질서는 Law라고 부르고 이 거대질서의 지배를 받으면서 역사 속에 명멸하는 인간욕망의 세계에 대해서는 Love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의 2

랑바움은 하아디 작품의 가혹한 내재의지 대항자들 중에서 특히 사회제도의 측면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하아디 주인공들의 성격적인 나약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사회계급보다는 성적인 욕구충족 성향을 가지고 인간적인 귀족(aristocrat) 여부가 가려지는 애정문학적인 주제가 하아디와 로렌스 문학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하아디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자연적인 애정욕구를 금지하는 사회규범을 이탈할 경우에 너무 쉽게 자기학대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비극적 결말을 맞는 반면에, 사랑의 실현을 위하여 때로는 반체제적 저항을 보일 정도의 소신과 강단을 보이는 로렌스의 주인공들과 다르다는 것이 랑바움의 견해이다.

Lawrence breaks with Hardy over the issue of the sexually potent characters whom Lawrence calls "aristocrats", and the issue of society's role in the novels. ... Hardy's fault, says Lawrence, is that he always stands "with the community in condemnation of the aristocrat," when his private sympathy is always with the individual against the community. Hardy gives to his distinct individualities ... "a weak life-flow, so that they cannot break away from the old adhesion" to the communal morality. Tess, for example, sided with the community's condemnation of her. (Meyers 86-7)

하아디의 주인공들 가운데에는 사랑의 욕구가 강한테도 경직된 사회적 금단에 부딪칠 때마다 과도하게 움츠러들고 필요 이상의 파멸적인 자기비난과 자책감을 겪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경우가 많다. Clym, Henchard, Tess, Angel, Jude, Sue 등이 그러한 경우인데, 이들처럼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가 낭만적인 사랑을 구가하거나 자기실현의 의지를 불태우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반면에 Eustacia, Wildeve, Mrs Yeobright 등 사랑의 욕망이 강하고 사회적 금단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주인공들은 운명적인 자연력의 장애물에 부딪침으로써 비극적 결말에 이른다. 하아디 소설은 장편이든 단편이든, 만나고 헤어지는 기구한 사연만 슬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으로 성공적인 사랑의 휴먼 드라마를 보여주는 예는 거의 없는데, 사회제도 탓이든 운명 탓이든 온갖 장애물에 부딪침으로써 어렵게 만난 사이의 보람도 없이 허무하게 헤어져버리는 연인들의 애처로운 결말은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작가의 강한 선입견 같은 것을 엿보게 한다. 이와 반면에 로렌스 문학의 경우에는 사랑의 주체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사연에 외적인

원론적 세계설명의 주요 항목으로 삼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하아디 문학에서는 맹목적인 거대세력인 Law 앞에서 인간의 목적이 실린 Love는 너무 무력하게 굴복하기 때문에 양자간의 조화로운 공존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하아디 연구」의 어조를 보건대, 로렌스에게 있어서 하아디 문학의 허무주의는 그 자신이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고 생각된다. 도덕문제를 가지고 고뇌하는 인간의 역사, 인생이라는 허무한 도덕극이 벌어지는 무대는 도덕적인 고민 같은 것은 끼여들 여지가 없는 황막한 별판, 도덕개념 이전의 불가해한 자연이기 때문이다. [There is **no reconciliation between Love and Law**. The spirit of Love must always succumb before the blind, stupid, but overwhelming power of Law. ... Always he[Hardy] must start from the earth, from the great source of the Law, and his people move in his landscape **almost insignificantly**. *Phoenix* 480]. [The immorality of nature surrounds us in its eternal incomprehensibility, and in its midst goes on the little human morality play, **with its queer frame of morality and its mechanized movement**. *Phoenix* 419.] \*문자체 강조는 필자의 것임.

요인이 끝까지 꺾방을 놓는 사례가 별로 눈에 띄이지 않는다. 로렌스적인 애정소설의 골자는, 연인들끼리 만나고 헤어지는 미묘한 계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주어지지 않고 어떻게든 맺어진 연인들 끼리 벌어지는 사랑의 암투와 갈등, 이와 더불어 진득하게 다가오는 사랑의 환희나 배신감으로 되어있다. 사랑의 성패를 좌우하는 우선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자신들의 자기성숙과 세계인식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랑바움의 견해는 시대론적인 함축성을 담고 있다. 로렌스 시대에 와서는, 사회적 규범의 힘이 크게 약화되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추구하는 마당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소설소재가 주인공의 내면적 욕구와 주체적인 존재양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In Lawrence's novels, ... such signals[of societies] have ceased: social proprieties are no longer an obstacle to anyone's desires. ... Lawrence evolves a genre ... that substitutes for social notation the externalization of internal states of being: this genre exists on the borderline between myth and novel. Meyers 89]이 랑바움의 견해이다.

이상의 서술을 기초로 하여 하아디와 로렌스의 자연관을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이 발견된다. 첫째 하아디 소설의 자연이 무섭고 황량한 모습이며 인간의 목적추구에 대해 적대관계에 있음에 반하여 로렌스 소설의 자연은 풍부한 생명력과 영감의 원천이 된다. 로렌스의 문학에서 자연이 지니는 생명력은 도시문명의 생명파괴 현상을 뚜렷하게 부각시켜주기 때문에 자연과 문명의 대비가 인상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그의 작품의 주요한 표현수단이 된다. 하아디 소설의 자연이 황량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영국 농촌에서 전통적인 자연친화적 삶의 양식이 파괴되는 중이었다는 점과 하아디 소설의 주요 무대로서는 도시가 제외되기 때문에 문명비판의 소재도 농촌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하아디 소설에서 열정적인 연인들은 자연과 교감하는 순화된 정서생활의 기쁨을 모르고 시골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을 기피하고 있음에 반하여, 로렌스의 자유주의 연인들은 번잡한 도시생활이나 규격화된 문명생활을 혐오하고 숲과 같은 자연 속에 묻혀 구속없는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대자연의 감화력에 접함으로써 사랑의 열정과 삶의 활력을 얻는다. 로렌스의 러브 스토리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은, 숲속이나 강가 같은 자연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연애는 자기실현적 성공적인 애정 드라마를 만들기 쉬운 반면에, 소란한 도시환경에서 일어난 연애사건은 대체로 쓸쓸한 실패로 끝난다는 것이다. 솔직하고 과감한 자기표현을 마다않는 사랑의 열정이란 것도 하아디의 소설에서는 실패하는 사랑을 낳기 쉬운 반면에 로렌스의 경우에는 성공하는 사랑을 낳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하겠다.

셋째, 하아디 소설에서 사랑에 성공하는 주인공들은 타락한 사회상이나 절망적인 시대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하거나 순종하고 있음에 반하여, 로렌스 소설에서 성공하는 연인들은 생명파괴적인 문명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준엄한 비판의식과 자각적인 독립정신을 지니고 있다. 로렌스의 문학의식에 있어서는 현대문명에 대한 절망과 비판의식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반면에, 하아디의 경우에는 보다 넓은 범주의 인류문명에 대한 허무의식이 더 크게 작용한 탓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로렌스 소설의 경우 인간에 의한 자연성 파괴가 무절제한 소유욕

때문이라는 것이 현대문명비판의 요지가 되고 있고, (그 대상이 물질적인 재산이든 인간적인 사랑이나 권력이든) 과도한 소유욕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황폐한 정신상태와 자기파멸과정이 소설적 모티브의 상당부분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하아디의 경우에는, 과도한 소유욕으로 인한 현대적인 자연파괴 현상이 별다른 작품 모티브가 되고 있지 못한데, 이는 그의 주요 관심사가 보다 넓은 범주의 인간비극, 현대 산업사회에만 그치지 않는 보다 보편적인 인간문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하아디가 묘사하는 죽음의 장면이 대체로 허무감과 비애감을 자아내는 것임에 반하여 로렌스가 그리는 인간의 죽음은 경건하고 장엄하다는 것이다. 인간 생명과 욕망의 의미에 대하여 하아디 문학은 축소지향적이고 로렌스 문학은 확대지향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두 작가의 문학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ess, Jude, Eustacia, Wildevve, Henchard 등 하아디 비극의 대표적인 주인공들은 이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아까워하는 사람도 없이 비명에 죽어갔으며, 이들이 당한 죽음은 이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렬하다는 느낌보다는 애처로운 느낌이 먼저 앞선다. 주인공이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내가 태어난 날이여, 사라져버려라”[Let the day perish wherein I was born.]라는 저주의 원성을 보냄과 동시에 막을 내리는 『비운의 주드』는 하아디 비극의 절정을 이룬다. 로렌스 작품의 죽음은 이와 다르다. 『아들과 연인』 중에 Paul Morel의 어머니 Mrs Morel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여인들』에서 Gerald Crich의 죽음은, 그들의 열정적이었던 삶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명복을 빌어줄 만한 가족이나 친지들을 남기고 있다는 의미에서 결코 허무하지 않다. 『무지개』에서 Tom Brangwen의 죽음은 그의 애뜻한 사랑을 받고 자랐던 의붓딸 Anna에게 범접할 수 없이 장엄한 것으로 보였다[He was perfectly calm in death, and, now he was laid in line, inviolable, unapproachable. To Anna, he was the majesty of the inaccessible male, the majesty of death, 250]. 주인공들의 죽음에 대한 두 작가의 묘사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차이는 아마도, 별거벗은 자연현상만을 보는 자연주의자와 자연현상에다가 인간의 욕망과 목적을 덧씌워서 바라보는 낭만주의적 자연주의자의 시각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 인 용 문 헌

- Carpenter, Richard C. *Thomas Hardy*. Boston: Twayne Publishers, 1964.
- Ebbatson, Roger. *Lawrence and the Nature Tradition: A Theme in English Fiction 1859-1914* (Portsmouth: Harvester Press, 1980)
- Eddins, Dwight. "Cultivating the Tree of Life: D. H. Lawrence's Naturalistic Modernism" in *D. H. Lawrence Studies*. Vol. 5[D. H. 로렌스 연구]. Seoul: D. H. Lawrence Society of Korea, 1996.
- Edwards, Paul, ed.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The Free Press.
- Hardy, Thomas. *Tess of the d'Urbervilles: A Pure Woman*. London: Macmillan & Co Ltd., 1957.
- . *The Return of the Native*. New York: Norton & Company, Inc., 1969.
- Howe, Marguerite Beede. *The Art of the Self in D. H. Lawrence*. Ohio University Press, 1985.
- Langbaum, Robert. "Lawrence and Hardy" in *D. H. Lawrence and Tradition* ed. Jeffrey Meyers. London: The Athlone Press, 1985.
- Lawrence, D. H. "First Glimmerings of Mind" in *Fantasia of the Unconscious & Psychoanalysis and the Unconsciou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0.
- . *Phoenix: The Posthumous Papers of D. H. Lawrence*. ed. E. D. McDonald. New York: the Viking Press, 1936.
- . *Phoenix II: Uncollected, Unpublished, and Other Prose by D. H. Lawrence*. ed. Warren Robverts & H. T. Moor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8.
- . *The Letters of D. H. Lawrence, II*. ed. Aldous Huxley. London: Heinemann, 1956.
- . *The Rainbow*.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15.